

# “이재명 대통령 당선 기념...한 톱 쏙니다”

### “민주주의 지켜낸 시민들 위로” 광주 곳곳 자축의 나눔 행사 백반·한강 책·티켓·한복 등...식당가·SNS 등서 잇단 이벤트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광주 곳곳에서 '우리가 쓴다'며 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이 잇따랐다. 한 분식점에선 공기밥과 달걀 후라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5·18정신을 잇겠다"며 점심 시간을 무료로 제공하는 점주도 있었다. SNS는 민주주의의 승리를 자축하며 한강작가의 책, 한복, 인형 등 다양한 무료 이벤트를 여는 누리꾼들로 가득했다.

광주시 남구 봉선동의 한 분식점은 4일부터 이틀간 '선택은 끝났고 이제 회복만 남았다'는 문구를 내걸고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 달걀 후라이와 공기밥을 무료로 제공했다. 이날 점심 시간 동안 60여개의 달걀과 공기밥이 서비스로 제공됐다.

점주인 황영정(여·45)씨는 "선거는 끝났지만 계엄, 탄핵 등 그간의 시간 속에서 시민들 마음에 쌓인 피로가 커서 생각해 작은 위로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정치는 선택이지만 회복은 모두의 몫이라 생각했다. 공기밥과 작은 후라이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웃음이 될 수 있다"며 "그걸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의 한 식당은 4일 오전부터

가게 외벽에 '경축 이재명 대통령 당선, 오늘 점심 무료'라는 종이를 붙이고 백반 나눔에 나섰다. 업주 양정자(여·67)씨는 "기뻐하는 시민들과 마음을 나누고 싶었다. 경제도 어렵고, 서로 딱딱한 시기인데 그동안 고생했을 사람들에게 오늘날이라도 따뜻한 밥 한 끼 나눠보자 싶었다"며 "가족들이랑 '우리도 좋은 마음으로 뭔가를 해보자'고 얘기를 나눴고 무료 급식을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양씨는 죽순나물, 깻잎무침, 두부조림, 계란말이 등 10가지 이상을 '집에서 해주는 반찬처럼, 조미료 없이' 준비했다.

온라인에서도 나눔의 물결이 이어졌다. 일부 누리꾼은 SNS에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와 '작별하지 않는다'를 나누겠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추첨을 통해 해당 책을 선물하고 싶다고 하며 "1980년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가, 추운 겨울 우리가 지켜낸 민주주의가 계속 이어지길 바란다"는 문구를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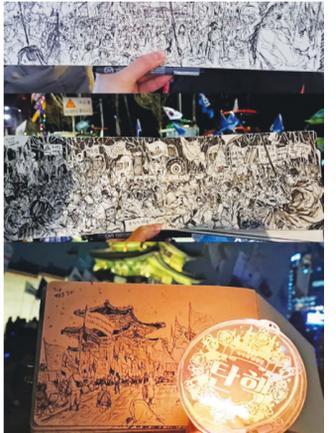
직접 제작한 인형, 한복, 디자인이미지에 더해 자신이 좋아하는 아이들의 포토크라나 공연 관람권 등을 나누겠다는 글도 잇따랐다.



광주시 서구 쌍촌동 '양여사 가정식 백반'은 4일 시민들에게 무료 식사 이벤트를 열었다. (왼쪽) 한 누리꾼은 한강 작가의 책 '소년이 온다' 나눔 이벤트를 열고 또 다른 누리꾼은 탄핵 집회 모습이 담긴 집회 그림 기록본을 선물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 기념 추첨 1분께 한강 작가님의 <소년이 온다>를 드립니다. 1980년 광주가 지킨 민주주의가 추운 겨울 대한민국이 지킨 민주주의가 영원히 지속되길 기도하겠습니다. ★ 당발은 6/13(금) 예정 (2, 4 지지자는 참여 불가능)



다"며 파랑새 철릭 원피스를 내건 한복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파랑새는 기쁨과 희망을 부르는 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신이 만든 키링, 인형 옷 세트, 기프트카드 등을 선물하겠다는 누리꾼들의 게시물이 이어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음악극 '태일' 관람권을 나누겠다는 한 누리꾼은 "노동운동가 전태일 열사의 삶과 닿아있는 대통령 탄핵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나눈다"고 전했다.

탄핵수건을 만들었던 한 누리꾼도 개표 결과 '확실'이 뜨는 순간 총 60명을 대상으로 당선기념 수건 나눔 이벤트를 열며 "당선기념 수건도 만들

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돼서 다행"이라며 "함께 힘써주시는 민주시민분들께 무료 나눔 하게 돼서 영광이다"고 전했다. 뜨거웠던 집회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낸 작가 '탑승'의 집회 그림 기록본을 선물하겠다는 글도 올라왔다.

한 한복 업체는 "대한민국 모두가 혐오 없이 감싸안을 수 있는 나라, 살기 좋은 나라가 되길 바란

다"며 파랑새 철릭 원피스를 내건 한복 나눔 이벤트를 진행했다. "파랑새는 기쁨과 희망을 부르는 새"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외에도 자신이 만든 키링, 인형 옷 세트, 기프트카드 등을 선물하겠다는 누리꾼들의 게시물이 이어졌다. /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 광주 인구 140만명선 무너졌다 '21년만에'

### 5월 139만 9880명...청년층 등 1분기 4945명 순유출 '전국 1위'

수도권으로 인구 집중이 심화되면서 지역 인구는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한때 150만명을 넘었던 광주 인구가 끝내 140만명선마저 무너졌다. 광주 인구가 140만명보다 낮아진 것은 2004년 이후 21년만이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인구 순 유출세가 이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전남의 고령화는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로, 65세 이상 인구(49만 4222명)가 전남 전체 인구(178만 4116명)의 27.7%에 달했다.

4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30일 기준 광주 인구는 139만 9880명으로 집계됐다. 남성 69만 826명, 여성 70만 9054명이다. 광주 인구는 올 1월 140만 7097명, 2월 140만 5226명, 3월 140만 2478명, 4월 140만 827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자치구별 인구는 지난 5월 말 기준 북구가 42만 55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산구(38만 9542명), 서구(27만 6651명), 남구(20만 8091명), 동구(10만 5043명) 순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 인구도 전월 대비 북구(-687명), 광산구(-369명), 서구(-313명), 남구(-208명), 동구(-108명) 등 모두 줄었다.

광주시 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전반적인 거주지 이전 감소 및 출산에 따른 자연증가 등으로 2021년 8월 기준 전월 대비 857명이 증가하기도 했지만, 엔데믹 이후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광주시 인구는 청년층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광주는 올 1분기에도 4945명의 인구가 순유출되며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순유출 인구가 가장 많았다. 광주는 지난달에도 20~30대 인구가 전월 대비 814명이나 감소했으며, 이는 전체 감소 인구의 48.3%에 해당하는 수치다.

반면 올 1분기 인천(1만 1091명), 서울(6129명), 경기(5588명) 등 이른바 수도권은 인구가 순유입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광주를 비롯한 지방 청년들이 취업 등을 위해 수도권으로 이전한 결과다.

한편 광주시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4년으로, 당시 147만 5884명이 거주했다. 이후 광주시 인구는 출산을 감소와 고령화, 청년 인구 외부 유출 등 다양한 요인이 겹치면서 감소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게 행정안전부의 분석이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아파트서 캠핑용 배터리 화재로 1명 사망

광주의 한 아파트에서 캠핑용 배터리에 불이 나 거주민 1명이 숨졌다. 4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났다. 화재 현장에서는 거주민 7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불은 캠핑용 배터리 등을 태우고 20여 분만에 꺼

졌으며 주변으로 번지지 않았다. 불은 캠핑용 배터리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다. 화재 직후 자동 화재탐지설비와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으나, 진화 이후에도 연기가 다량 발생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등은 A씨가 화재 연기에 의해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

## 진도 가족 살해범 "경제난 때문"

### "2년여간 건설현장서 임금 못받아 빚 1억6천만원"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붙잡힌 40대 가장이 건설 경기 침체 속 경제난을 겪어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을 내놨다. 광주북부경찰은 4일 살인, 자살방조 등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A(49)씨가 "일용직 팀원들 임금을 주고 생활비를 쓰려고 빚을 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건설 현장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데리고 일하는 일용직 작업반장으로, 2년여 전 원정으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해 경제난을 겪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자신이 불러모은 팀원들에게 밀린 임금을 주기 위해 대출을 받았는데, 결국 빚이 늘어 자신과 아내에게 각 8000만원 씩 총 1억6000만원 상당의 빚이 생겼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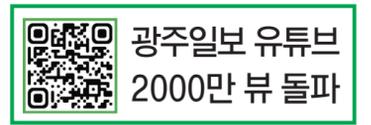
또 A씨는 "조울증을 앓는 아내를 돌보느라 힘들었고, 생계가 힘들어 가족과 함께 죽으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차량을 바다에 추락시키기 전 아내와 "같이 죽자"는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A씨에게 아내에 대한 자살방조 혐의도 적용했다.

A씨는 지난 1일 새벽 1시 10분께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에서 동갑인 아내와 18세, 16세 고등학

생 아들 두 명을 승용차에 태우고 바다로 돌진해 가족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에 앞서 목포시 일대에서 고등학생 아들들에게 영양제라고 속이고 아내가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인 뒤, 진도항에 도착해 아내와 함께 수면제를 먹고 차량을 바다에 빠뜨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바다에 빠진 이후 차량 운전석 창문을 통해 빠져나왔고, 이후 인근 산 속에서 머물다가 전화를 빌려 가족에게 "데리러 오라"고 요청했다. 가족은 A씨가 함께 일했던 건설 현장 동료에게 대신 부탁을 했고, 2일 오후 6시께 동료의 차를 타고 광주로 오다 광주시 서구 양동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도주 우려를 들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이날 발부받았다. 경찰은 A씨 등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 포렌식 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재희 기자 heestory@kwangju.co.kr



# 광주문화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